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Warmth Parenting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이선희¹ 이은경² 박선영³

Sun-Hee Rhee¹ Eun-Gyoung Lee² Seon-Young Park³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between warmth parenting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Methods: The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014) was used to analyze 1,113 preschoolers.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Process Macro(Hayes, 2013).

Results: Warmth parenting indirectly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by yielding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n self-esteem and peer play interaction. Namely, warmth parenting does not directly affect social competence but do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schooler self-esteem, which positively affected peer play interaction. This path increases the social competence(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of preschool children.

Conclusion/Implic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competence (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of preschool children, it is important for the preschooler to consider themselves a worthy person and to learn positive interaction techniques through warmth parenting.

key words warmth parenting, self-esteem,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¹ 제1저자

승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e-mail : leg6180@gmail.com)

³ 공동저자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부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의 놀이장면에서 거부를 당하여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들이 늘어나고 또래 간의 갈등문제가 증가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베이비뉴스, 2018).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란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적 목표들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협력성은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을, 주장성은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말하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히 자신의 의견 말하기 등을, 자기통제는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등을 의미한다(Gresham & Elliott, 1990).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들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 높아 친구를 잘 사귀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Bukowski, & Parker, 2007). 결국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되어야 타인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Raver & Zigler, 1997).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 사회적 적응 등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나가는 것과는 관련이 있기에(Parker & Asher, 1987), 아동발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부모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아동발달을 위한 일차적 환경이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은 어머니의 관계에서 경험했듯이 다른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친근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Lengua, Honorado, & Bush, 2007). 반면, 부모로부터 일관성 없는 양육을 경험했거나 자주 거절을 당했던 유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절 또는 강압적인 행동을 예상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쉽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Altay & Gure, 2012). 실제로,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 때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통제적 양육은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문혁준, 2018). 한편 몇몇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장성과 자기통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협력성에는 나타나지 않았다(Webster, Low, Siller, & Hackett, 2013).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사회적인 지지를 많이 하는 양육유형을 보이는 경우 자기조절보다 협력성과 주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sokawa, Katsura, & Shizawa,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주장성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여러 양육행동 유형 중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문혁준, 201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여러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이 유아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요인 뿐 아니라, 유아의 내적요인 또한 강력한 예측변인에 해당되는데 이중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판단이나 이와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되며(박성연, 2006), 개인의 감정, 행동, 동기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간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rter & Pike, 1984).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잠재력이 발달하는 등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단현국, 2004).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정,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군집을 나누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상위 집단의 유아들이 중위·하위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유아들은 사회적 유능성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임현주, 2018). 만 5, 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설아, 2014).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에게 다가가거나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등 낮은 주장성을 보인다(임현주, 2018).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의 사회적 양상을 보이며 점차 한 가정에 한 자녀를 낳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동아일보, 2019).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의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래와의 놀이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유아기는 또래에 관심이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 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심, 배려심, 협동심 등을 배워나가기게 된다. 또래 간 놀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도 관련이 있기에(문혁준, 2009),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또래놀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행동과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정의된다(최혜영, 신혜영, 2011).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그리고 Sutton-Smith(1998)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하위변인들을 ‘놀이상호작용’의 긍정적 행동과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부정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놀이상호작용’은 또래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는 등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높은 사회적 유능

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영, 2000; 임현주, 2018).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유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주, 2018). 반면, 부정적 또래관계에서 보여지는 ‘놀이단절’이나 ‘놀이방해’는 유아의 불안, 공격성 등을 야기시켜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한다(최혜영, 신혜영, 2008). 비슷한 맥락에서 또래관계 내에서 친구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도움을 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의 질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송지윤, 김미숙,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가 발달된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부모가 합리적 지도, 애정적, 반응성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부모와의 초기대상관계 유형이 애정적이고 반응적일 때 유아의 자기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숙현, 2006). 또한 어머니가 간섭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지양할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루 등,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탐색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거나 격려와 존중을 하는 등의 온정적 양육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는 양육행동의 요인으로 밝혀졌다(윤선영, 정혜숙, 2010). 다음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유능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조준오, 탁정화, 2015). 즉, 부모는 유아기 자녀가 또래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아는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을 연습하고 학습하게 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들은 또래놀이에 잘 참여하고 놀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낮았다(김선희, 2014; 노보람, 은선민, 이강이, 김은영, 2016). 반면, 거부·제재와 같은 부정적 양육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안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거나 놀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전주람, 김순옥, 2009).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유아들은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를 확장해 나가며,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다(지성애, 김승희, 2010).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유아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오, 김영언, 나정, 2016). 이와 비슷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어려움을 적게 느끼며,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능숙하게 하는 연구(황정희, 2014)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들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양유리, 2019)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가정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을 일으킨다는 연구(전란영, 김희화, 2016)나, 부모가 온정적이고 격려를 해줄수록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를 높여준다는(박주희, 이은혜, 2001) 선행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들(조준오 등, 2016; 지성애, 김승희, 2010)에 근거할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연결하는 기제에서 자아존중감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네 변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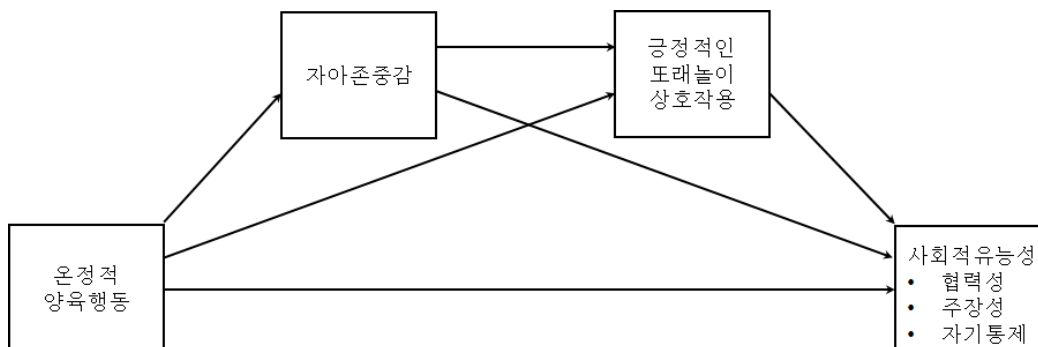


그림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7차년도 자료는 만 6세 아동과 부모,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사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110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아 570명(52.1%), 여아가 543명(48.8%)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M = 75.12$ 개월($SD = 1.43$)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98명(23.2%)이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1091명(50.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9.29세($SD = 4.01$)였으며,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68명(3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83세($SD = 3.69$)였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이 608명(28.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생님의 평균연령은 32.20세($SD = 7.86$)였으며, 선생님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478명(22.2%), 대학교 졸업이 446명(20.7%)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450.97만원($SD = 211.95$)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의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내적일치도는 .861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와 Pike(198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검사자가 유아에게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수용, 어머니의 수용에 대한 하나의 물음에 각각 2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아동이 2개의 그림 중 본인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자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남아용 그림과 여아용 그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유아가 응답을 변경하였을 경우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퍼즐을 잘 못 맞추는 그림”과 “퍼즐을 잘 맞추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많이 맞추지 못하면 1점, 조금 맞추지 못하면 2점, 잘 맞추면 3점, 아주 잘 맞추면 4점으로 평정한다. 잘 못하는(아는) 유아와 잘 하는(아는) 유아의 순서를 바꾸어 질문한 경우 역부호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 때 그네타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그림을 찾는 3번 문항이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신뢰도 측정에서 하나의 문항을 제외하고도 Hotelling T 제곱도($F = 370.247, p < .000$)가 유의하게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내적일치도는 .614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 (1998)이 제작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들이 또래와 놀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에 평정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서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창의적 놀이를 하는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9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담임 교사가 유아의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또래 관계를 평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정말 그렇다’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놀이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내적일치도는 .812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의 사회적 기술 평정 도구를 서미옥(2004)이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교사가 평정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총 21 문항으로 협력성(9문항), 주장성(5문항), 자기통제(7문항)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는 유아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평정한다. 협력성의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과 놀이할 때 규칙을 잘 지킨다”를, 주장성의 문항의 예로는 “놀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한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자기통제의 문항의 예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까지 3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23이었으며,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주장성, 자기통제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893, .821, .83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도 자료는 총 1,620명이 조사에 임하였으며, 아동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25명으로, 90.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bootstrap 표본은 10,000개, 신뢰구간 구축방법은 편인 수정(bias-corrected),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는 표준화 계수(β)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자료의 점수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

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은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_s = .065 \sim .072, p < .05$),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은 보통 수준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_s = .485 \sim .553, p < .001$; 표 1 참조).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분석에 있어 상관관계를 제 1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Bollen(2014)과 Hayes(2013)는 이러한 사고가 오류임을 제기하며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이 없거나 낮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분석에서는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직렬매개효과(Model 6)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 = 1113)

	1	2	3	4	5	6
1. 온정적 양육행동						
2. 자아존중감	.114***					
3.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048	.069*				
사회적 유능성						
4. 협력성	.053	.076*	.489***			
5. 주장성	.026	.076*	.476***	.438***		
6. 자기통제	.065*	.070*	.540***	.686***	.632***	
Mean	3.558	2.954	3.083	2.661	2.478	2.408
SD	.462	.253	.448	.385	.440	.435
Skewness	-.040	-.584	-.650	-1.242	-.735	-.563
Kurtosis	.195	.566	1.286	.982	-.014	-.215

* $p < .05$, *** $p < .001$.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협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을 적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후 자아존중감을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한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협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17, p < .001$; 표 2, 그림 2 참조).

한편 이러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미치는 직렬매개 효과의 신뢰구간만이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 경로의 직렬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3, 95\% \text{ CI } [.001, .008]$).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온정적 양육행동과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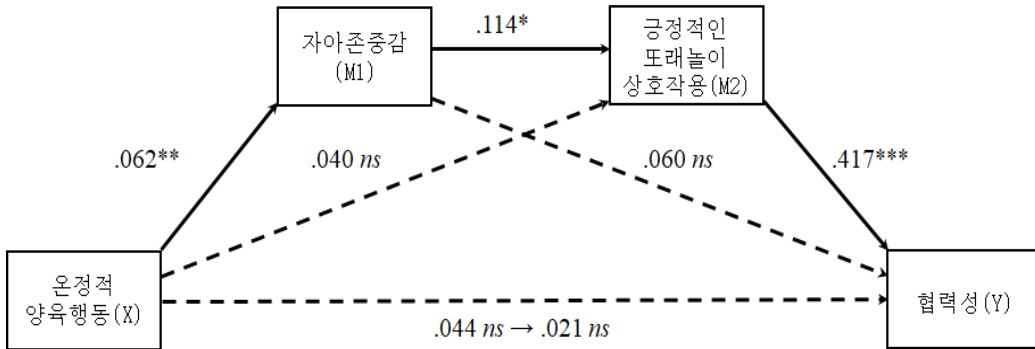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2.617	2.847	14.598**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	-.018	.970	3.582* (2, 1110)
	자아존중감	.114	.053	2.140*	.010	.218	
협력성	온정적 양육행동	.021	.022	.954	-.033	.064	1117.948*** (3, 1109)
	자아존중감	.060	.040	1.493	-.019	.139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417	.023	18.508***	.372	.461	
협력성	온정적 양육행동	.044	.025	1.768	-.005	.093	3.127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온정적 양육행동과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 = 1113)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44	.025	1.87	-.002	.089
직접효과	.018	.029	.937	-.019	.055
간접효과					
전체	.026	.014		-.001	.057
X→M1→Y	.004	.003		-.002	.009
X→M2→Y	.019	.014		-.008	.045
X→M1→M2→Y	.003	.002		.001	.008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협력성에 미치는 경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주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64$, $p < .001$; 표 4, 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 사이의 직렬매개 모형의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측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직렬매개 하는 경로의 신뢰구간만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 경로의 직렬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3$, 95% CI [.001, .007]; 표 5 참조). 이처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Hayes, 2013). 즉, 부모의 온정성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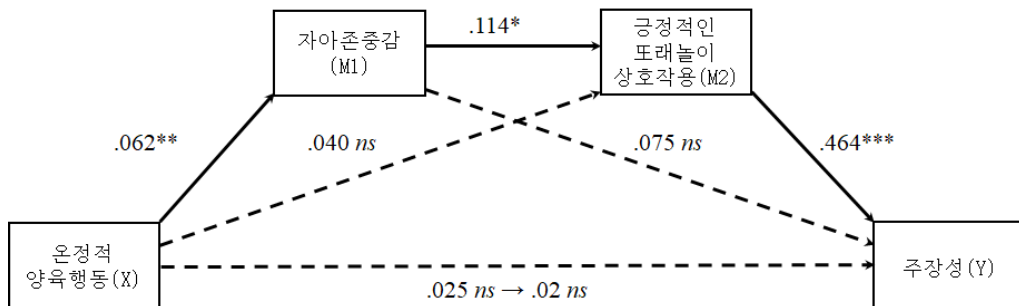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030	.095	14.600***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0	-.018	.970	3.581* (2, 1110)
	자아존중감	.114	.053	2.139*	.010	.219	
주장성	온정적 양육행동	.002	.025	-.065	-.051	.048	109.300*** (3, 1109)
	자아존중감	.075	.046	1.620	-.016	.166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464	.026	17.868***	.413	.515	
주장성	온정적 양육행동	.025	.029	.865	-.031	.081	.748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5.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 = 1113)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24	.029	.865	-.031	.081
직접효과	-.002	.025	-.065	-.051	.048
간접효과					
전체	.026	.013		.001	.054
X→M1→Y	.005	.003		-.001	.012
X→M2→Y	.018	.013		-.007	.045
X→M1→M2→Y	.003	.002		.001	.007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그림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주장성에 미치는 경로

4.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61, p < .05$),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그러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21, p < .001$; 표 6, 그림 4 참조).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 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이 두 변인 사이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영향

표 6.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11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030	.095	14.600**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0	-.018	.970	3.581* (2, 1110)
	자아존중감	.114	.053	2.139*	.010	.219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050	.044	1.133	-.036	.135	154.285*** (3, 1109)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521	.025	21.213***	.473	.569	
자기통제	온정적 양육행동	.061	.028	2.169*	.006	.1165	4.706*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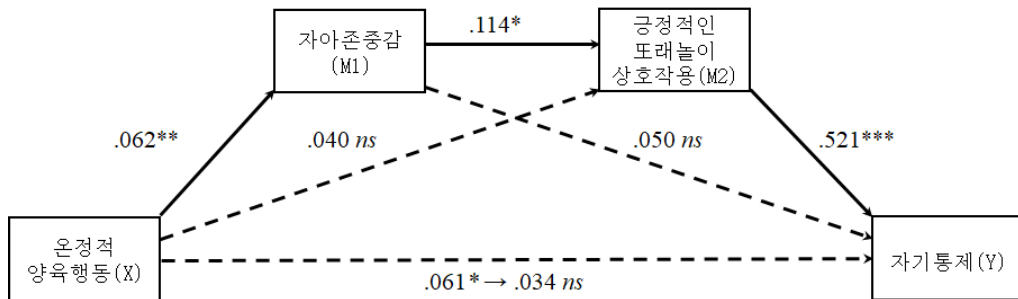
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4$, 95% CI [.001, .009]; 표 7 참조).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 = 1113)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61	.028	2.169*	.006	.1165
직접효과	.034	.024	1.41	-.013	.081
간접효과					
전체	.027	.015		-.003	.057
X→M1→Y	.003	.003		-.002	.010
X→M2→Y	.021	.015		-.010	.050
X→M1→M2→Y	.004	.002		.001	.009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경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갖는 직렬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인 협력성, 주장성, 그리고 자기통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놓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이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직렬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태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고현경, 이승연, 2010; 김현주, 홍상황, 2015; 우수정, 2014)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들(조준오 등 2016; 지성애, 김승희, 2010),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높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문혁준, 2009; 임현주, 2018).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을 일으킨다는 연구(전란영, 김희화, 2016)나, 부모가 온정적이고 격려를 해줄수록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를 높여준다는 연구(박주희, 이은해, 2001)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인 직렬매개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윤희, 문혁준, 2018; Hosokawa et al., 2017; Webster et al., 2013)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모와의 직접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의 실질적 교류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유능성은 가족환경을 벗어나 기관현장에서 또래 및 성인과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긍정적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수용 받고, 공감 받고, 이해 받는 온정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사회적 유능함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유능하며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 또래들과 보다 즐거운 경험을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아에게 보내는 평가와 피드백이 긍정적이며, 유아는 이러한 부모상을 내면화하여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부모가 공감과 수용, 애정적 반응, 온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유아는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에서도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경로는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기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

구들과 힘을 합하여 도와야 하는 협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직렬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번째 연구문제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내적인 변화 즉,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또래들과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주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성에서 주장성이 높다는 것은 동료들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친구에게 같이 하자는 말하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히 자신의 의견 말하기 등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Gresham & Elliot, 1990).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잘 피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의 놀이 상황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또래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기반이 되어 자아존중감을 높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친구를 대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과는 달리 자기 통제는 직접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 김현미와 도현심(2004)과 임현주(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는 최윤희와 문혁준(2018), 최진희(2009), Harman와 Brim(198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자기통제발달에 있어서만큼은 일차적인 사회화의 대행자로 부모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하는지를 보고 배우며 이러한 자기통제 전략들을 내면화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문제상황에서도 자기를 통제하며 온정적인 양육을 보일 때 유아도 부모와 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자기통제가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등의 개념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할수록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민감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김성현, 배율미, 2016; 오연경, 황혜신, 2019; 최인숙, 2014). 그러므로 사회적 유능성 중 정서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자기통제가 작게나마 온정적 양육행동의 직접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

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통제 역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신이 수용 받은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로는 다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근하고 긍정적인 놀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등의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또래들과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와 같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으로 대표되는 심리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바람직한 행동성향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유아들에 대한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여 또래 간 갈등을 일으키는 유아들에게 무엇보다 또래들과 즐거운 놀이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발달하므로 유아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변화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유아의 내적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차적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제적인 부모교육의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선행연구에 의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패널데이터의 변인설정의 한계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내적작동모형이나 정신화(metalization)와 같은 변인들을 활용하여 내적인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렬매개분석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변인들 간 시간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횡단설계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변인들 간 적절한 시간차를 두어 정밀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변인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많지만,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직렬매개 변인으로 놓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

가 처음이다. 특히 부분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인 변화를 이끌고 이는 다시 또래들과 놀이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만들어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아동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패널데이터 연구원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은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이 응답한 다층적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 고현경, 이승연 (2010). 만 4,5세 유아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육아지원연구**, **5**(1), 27-50. doi:10.16978/ecec.2010.5.1.002
- 김선희 (2014).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317-388.
- 김성현, 배울미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유아의 자기조절의 중재적 효과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2), 471-494.
- 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수영 (2000). 유아의 또래 수용도,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형태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3), 47-65.
- 김숙현 (2006). 어머니의 초기대상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doi:10.20972/kjee.26.1.201503.413
- 노보람, 은선민, 이강이, 김은영 (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4), 155-179. doi:10.15284/kjhd.2016.23.4.155
- 단현국 (2004).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함수풀이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편,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pp. 3-13).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 동아일보 (2019. 3). **저출산 재앙의 시작: 한국이 쪼그라든다**. <http://news.donga.com/3/all/20190329/94792426/1>에서 2019년 6월 3일 인출
- 문혁준 (2009).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 아동학회지, **30**(2), 57-69.
- 박성연 (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베이비뉴스 (2018. 12). **오늘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나 혼자 놀았어**.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81>에서 2019년 6월 5일 인출
-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송지윤, 김미숙 (2017). 아동의 수줍음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2), 143-154. doi:10.17641/KAPT.20.2.3
- 양유리 (2019).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연경, 황혜신 (2019). 부모의 유머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0**(1), 27-37. doi:10.5723/kjcs.2019.40.1.27
- 우수정 (2014).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5), 759-771.
- 윤선영, 정혜숙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5), 27-54.
- 이설아 (2014).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치원 적응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 (201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9-56.
- 임현주 (2018).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놀이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다변량분석. **유아교육연구**, **38**(3), 215-236. doi:10.18023/kjece.2018.38.3.009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진주람, 김순옥 (2009).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73-190.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준오, 김영언, 나정 (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탐색. **아동교육**, **25**(1), 261-276. doi:10.17643/KJCE.2016.25.1.15
- 조준오, 탁정화 (2015).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443-468.
- 지성애, 김승희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상호작용, 놀이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 구, **15**(4), 111-127.
- 최윤희, 문혁준 (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221-228. doi:10.5392/JKCA.2018.18.07.221
- 최인숙 (2014).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47-58.
- 최진희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영, 신혜영 (2011).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5-186.
- 최희정 (2011).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3**(2), 139-167.
- 황정희 (2014).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또래관계 특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tay, F. B., & Gure, A. (2012).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ing styles and the social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f the children who are attending to state and private preschool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4), 2712-271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ollen, K. A. (2014).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doi:10.1016/S0885-2006(99)80048-9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s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rman, D., & Brim Jr, O. G. (1980). *Learning to be parents: Principles, programs, and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doi:10.2307/112977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sokawa, R., Katsura, T., & Shizawa, M. (2017). Relations of mother's sense of coherence and childrearing style with child's social skills in preschool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1*(11), 1-11. doi:10.1186/s13034-017-0147-6
- Lengua, L. J., Honorado, E., & Bush, N. R. (2007). Contextual risk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ef-

- 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40-55. doi:10.1016/j.appdev.2006.10.00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doi:10.1111/j.1467-9507.2007.00389.x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doi:10.1037/0033-2909.102.3.357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s: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doi:10.1016/S0885-2006(97)90017-X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7).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Hoboken, NJ: John Wiley & Sons. doi:10.1002/9780470147658.chpsy0310
- Webster, L. L., Low, J., Siller, C., & Hackett, R. K. (2013).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of a father's warmth on his child's social skills.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11(1), 90-113. doi:10.3149/ft.1101.90

논문투고: 19.04.15

수정원고접수: 19.07.10

최종게재결정: 19.08.02